

## 국내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

김희경<sup>1</sup> · 손연정<sup>2</sup> · 이미라<sup>3</sup> · 임경춘<sup>4</sup> · 장혜경<sup>5</sup> · 한수정<sup>6</sup> · 양남영<sup>6</sup> · 유명란<sup>7</sup> · 고은자<sup>8</sup>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건강산업연구소 연구원<sup>1</sup>,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sup>2</sup>, 대전보건의대 간호과 전임강사<sup>3</sup>,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sup>4</sup>, 한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sup>5</sup>,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sup>6</sup>,  
국군간호사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sup>7</sup>, 전임강사<sup>8</sup>

###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Kim, Hee-Kyung<sup>1</sup> · Son, Youn-Jung<sup>2</sup> · Lee, Mi-Ra<sup>3</sup> · Lim, Kyung-Choon<sup>4</sup> · Chang, Hae-Kyung<sup>5</sup> ·  
Han, Su-Jeong<sup>6</sup> · Yang, Nam-Young<sup>6</sup> · Yoo, Myoung-Ran<sup>7</sup> · Ko, Eun-Ja<sup>8</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 Health Industry Research Institute, <sup>2</sup>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oonchunhyang University, <sup>3</sup>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Health Sciences College, <sup>4</sup>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sup>5</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 <sup>6</sup>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sup>7</sup>Assistant Professor, <sup>8</sup>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Methods:** Between October and December 2009, two hundred one Chinese students from three universities located in Cungnam province, were included in the current study using a questionnaire survey. Data analysis was done using SPSS/WIN 17.0 program. **Results:** The average score of acculturative stress was  $38.50 \pm 6.97$ .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culturative stress according to educational level, economic status, type of residence, speaking skill in Korean, listening skill in Korean, grade point average, satisfaction for studying abroad, and perceived health status. The acculturative stres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The strongest predictor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Chinese students was depression. **Conclus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developing programs to improve psychological health may provide a buffer against acculturative stress experienced by migrating Chinese students. Furthermore, more studies are needed to explore variables that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students' acculturation in Korea.

**Key Words:** Chinese, Students, Acculturation, Stress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국가 간의 경쟁과 협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인적 · 물적 자원의 교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외국인들의 국내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다국적의 유학생이 2007년에 49,270명, 2008년에는 63,952명으로 크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의 경우 2007년 31,829명으로 2001년 3,222명에 비해 약 10배가량 증가하여(Korean Ministry of Education &

**주요어:** 중국유학생, 문화적응, 스트레스

**Address reprint requests to:** Son, Youn-Jung, Department of Nursing, Soonchunhyang University, 366-1 Ssangyong-dong, Cheonan 330-090, Korea, Tel: 82-41-570-2487, Fax: 82-41-575-9347, E-mail: yjson@sch.ac.kr

- 대전/충청지역 성인간호학회 소규모 연구회  
- Adult Nursing Research Group at Daejeon · Chungnam

투고일 2010년 2월 2일 / 수정일 2010년 3월 8일 /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9일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8),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도 중국 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은 단순히 고등교육기관 정원의 확보나 재정확충의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깊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지지세력 확보 및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Lee, 2008).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란 두 집단 간에 이미 가지고 있던 문화경향에 이차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개인집단들이 지속적인 직접적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현상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가진 이전 문화, 새로운 문화에 대한 개인적 성향, 문화적응과정에서 개인행동 반응의 결과물,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구성된다(Berry, 2005). 일반적으로 자신의 문화와 다른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개인들은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Holleran & Jung, 2005).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타문화로부터 이주한 유학생은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을 떠나 지각된 차별, 정체성 혼란 그리고 자신의 지지체계를 잃은 상실감 등으로 인해 흔히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Ying, 2005).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를 말하며 새로운 문화로 적응하고자 할 때 개인 또는 집단이 경험하는 현상이다(Sandhu & Asrabadi, 1994). 유학생의 경우에는 문화적응 차이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 어학 실력에 대한 열등감, 모국의 가족과 친척에 대한 향수, 모국 문화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이 주원인이 될 수 있다(Lee, 2008).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유학생의 개인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인터넷 중독과 같은 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결국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외국인 유학생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데,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부적응은 전혀 익숙하지 않은 낯선 문화, 사회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신체적 건강문제 물론 우울, 불안, 외로움 등을 포함한 심각한 정신적 건강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Jang, Song, & Choi, 2009), 간호학 분야에서도 이들의 건강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다룬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국외의 경우 이민자나 외국 유학생 대상의 문

화적응 스트레스 관련요인을 광범위하게 다룬 조사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고(Constantine, Okazaki, & Utsey, 2004; Crockett et al., 2007; Li, & Gasser, 2005),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부적응 결과인 인터넷 중독 및 자살과의 관련성(Hovey & King, 1996; Li & Gasser, 2005; Walker, Wingate, Obasi, & Joiner, 2008), 사회적 지지와 자기주장 및 자기표현 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한 중재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었다(Ayers et al., 2009; Tavakoli, Lumley, Hijazi, Slavin-Spenny, & Parris, 2009). 반면 국내는 유학생 대상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정도를 파악하거나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Jang et al., 2009; Lee, Koeske & Sale, 2004; Na, 2006), 주로 교육학·사회복지학·심리학 분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간호학 분야의 경우 결혼 이주여성 및 외국 노동자 대상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소수 연구(Kim, Baik, Kim, 2003; Kim et al., 2008; Lee, Lee, Kim, & Kim, 2009) 외에는 유학생 대상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선행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언급된 변수로는 성별, 인종, 체류기간, 언어능력과 같은 일반적 특성(Berry, 2005; Lee, 2008; Yeh & Inose, 2003)과 심리적 변수로는 우울, 사회적 지지(Ayers et al., 2009; Jou & Fukada, 1996; Sumer, Poyrazli, & Grahame, 2008) 등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최근에는 역경에 쉽게 적응하거나 회복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적응유연성(resilience)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중요 영향요인으로서 부각되고 있다(Holleran & Jung, 2005; Miller & Chandler, 2002). 유학생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새로운 문화에 들어온 사람들로서 비교적 단기간 머물고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민자들과는 성격이 달라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을 수 있으나 유학생들 다수가 주로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특히 언어와 인간관계, 타문화에 대한 적응이 성인 중반기 이후의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Lee et al., 2004). 따라서 간호학적 관점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 대상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존 국내·외 연구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일반적 특성(Berry, 2005; Ying, 2005), 우울(Constantine, Okazaki, & Utsey, 2004; Hovey & King, 1996; Jou & Fukada, 1996), 적응유연성(Holleran & Jung, 2005; Miller & Chandler, 2002) 및 사회적 지지(Ayers et al., 2009; Lee

et al., 2004) 등의 개념을 포함한 연구에서 각각의 변인들을 단편적으로만 살펴보았을 뿐 이들 변인을 함께 연결시켜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국내 거주 유학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들 변인들을 포함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 및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이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적절한 간호중재를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중국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중국 유학생의 우울, 적응유연성, 사회적 지지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 중국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에 차이가 있는 지를 파악한다.
- 중국 유학생의 우울, 적응유연성, 사회적 지지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 수학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남 지역 4년제 대학 세 곳에 유학중인 중국 학생을 대상으로 임의 표출하였으며,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해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중국인 유학생 및 원어민 교수 3인의 도움을 받아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에의 참여의사를 구두로 밝히고 서면 동의한 317명에게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300부를 회수하였다. 그 중 응답이 미비한 9부를 제외한 총 291명이 최

종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G\*Power 3.0 프로그램을 이용한 예상 대상자수는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효과크기 회귀분석에서 보통 수준은 .15였을 때 154명이었으므로 본 연구대상의 291명은 이 조건을 충족시켰다.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고,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은 연구목적만을 위해 사용할 것이며, 연구참여자의 익명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참여는 본인의 자율적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였고 중간에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고 추후에도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 연구참여에 대한 감사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우울

우울은 정서적인 기분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근심, 침울함, 실패감, 무력감 및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정서장애로(Sumer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Spitzer, Kroenke와 Williams (1999)가 일차의료에 흔한 우울 환자를 조기 스크리닝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Choi 등(2007)이 한국판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한 9문항 4점 척도(0~3점)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 .843$ 이었다.

#### 2) 적응유연성

적응유연성은 스트레스 사건 이전의 적응수준으로 복귀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Walsh, 1998), 본 연구에서는 Wagnild와 Young (1993)이 개발한 도구를 Song (2004)이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 25문항 7점 척도의 도구를 이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유연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 .895$ 였다.

####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랑, 존중, 인정, 상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 등의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의되며(Lee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사회적 지지 평가 척도를 참고로 Lee (1997)가 작성한 15문항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세

부 영역은 가족의 지지·친구의 지지·교사의 지지 총 세 가지 영역 각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 .882$ 였다.

#### 4)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를 말하며 새로운 문화로 적응하고자 할 때 개인 또는 집단이 경험하는 현상이다(Sandhu & Asrabadi, 1994). 본 연구에서는 Hovey와 King (1996)이 대학생의 특징적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고자 개발한 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Acculturative Stress (SAFE) 16문항 4점 척도를 Lee (2008)가 외국인 유학생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문화적응 차이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 한국어 실력에 대한 열등감, 모국의 가족과 친척에 대한 향수, 모국 문화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 .795$ 였다.

####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였으며, 본 조사에 앞서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에 능통한 중국인 유학생 1인을 통해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설문지 예상 소요시간 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중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는데, 번역-역번역 과정은 한글로 작성된 설문지를 중국어와 한국어 능력 5급 이상의 2개 국어 모두 사용할 줄 아는 이중 언어자가 번역하고 번역한 설문지를 중국어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1인을 통해 감수받았다.

본 조사를 하기 위해 각 대학의 국제교류 본부 및 대외협력처의 기관장을 방문하여 자료수집에의 승인을 얻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중국인 유학생 2인과 원어민 교수 1인의 도움을 얻어 조사하였는데 이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응답을 얻기 위해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자료수집원이 유리하였다고 판단되었다. 이와 함께 연구자는 설문조사 전 자료수집원에게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그리고 면담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우울, 적응유연성, 사회적지지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e's test를 사용하였다.
- 대상자의 우울, 적응유연성, 사회적 지지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공선성 진단 후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1. 중국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균 연령은  $21.84 \pm 2.14$ 세로 20~24세가 85.9% (250명)로 가장 많고, 여학생이 70.1% (204명)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수학과정은 학부 68.4% (199명), 어학연수 21.6% (63명)의 순이었으며, 체류기간은 평균  $8.14 \pm 8.78$ 개월로 6개월 이하가 58.8% (171명)로 많았다. 종교는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68.4% (199명), 거주형태는 기숙사가 89.3% (260명), 경제수준은 중 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9.3% (231명)로 가장 많았다.

한국어 수준을 살펴보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모두 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일 적은 분포를 보였고, 중과 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학업성적은 3.0~4.0 미만이 65.8% (165명)로 가장 많았고, 유학만족도는 상과 중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44.3% (129명), 47.8% (139명)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지각된 건강상태는 상이 63.5% (185명)로 가장 많았다.

#### 2. 중국 유학생의 우울, 적응유연성, 사회적 지지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

대상자의 우울, 적응유연성, 사회적지지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본 결과, 우울은 27점 만점에 평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nese Students (N=291)

Variables	n (%) or M±SD
Age (year)	21.84±2.14
< 20	19 (6.5)
20~24	250 (85.9)
≥ 25	22 (7.6)
Gender	
Men	87 (29.9)
Women	204 (70.1)
Educational level	
Undergraduate	199 (68.4)
Graduate	29 (10.0)
Language school	63 (21.6)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12 (38.5)
Natural science/engineering/education	45 (15.5)
Art and physical education	58 (19.9)
Medicine and nursing	76 (26.1)
Length of stay (month)	8.14±8.78
≤ 6	171 (58.8)
7~12	53 (18.2)
≥ 13	67 (23.0)
Religion	
No	199 (68.4)
Yes	92 (31.6)
Type of residency	
Dormitory	260 (89.3)
Boarding house and etc.	31 (10.7)
Economic status	
High	15 (5.2)
Middle	231 (79.3)
Low	45 (15.5)
Korean fluency speaking	2.41±0.91
High	20 (6.9)
Middle	133 (45.7)
Low	138 (47.4)
Listening	2.73±1.02
High	61 (21.0)
Middle	128 (44.0)
Low	102 (35.0)
Reading	2.88±1.02
High	67 (23.0)
Middle	148 (50.9)
Low	76 (26.1)
Writing	2.53±0.96
High	35 (12.0)
Middle	133 (45.7)
Low	123 (42.3)
Grade point average (n=251)	
< 3.0	44 (17.5)
3.0~4.0	165 (65.8)
> 4.0	42 (16.7)
Satisfaction for studying abroad	
High	129 (44.3)
Middle	139 (47.8)
Low	23 (7.9)
Perceived health status	
High	185 (63.5)
Middle	75 (25.8)
Low	31 (10.7)

7.32±4.98점, 적응유연성은 최대 175점 만점에 138.97±19.07점, 사회적 지지는 75점 만점에 평균 61.53±7.67점으로 나타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최대 67점 만점에 평균 38.50±6.97점이었다(Table 2).

**Table 2.** Level of Depression, 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N=291)

Variables	Min	Max	M±SD	Range
Depression	0	26	7.32±4.98	0.00~27.00
Resilience	50	169	138.97±19.07	25.00~175.00
Social support	19	75	61.53±7.67	15.00~75.00
Acculturative stress	19	64	38.50±6.97	16.00~64.00

### 3. 중국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수학과정(F=3.392, p=.035), 거주형태(t=-2.408, p=.017), 경제수준(F=3.331, p=.037), 한국어 말하기(F=5.812, p=.003), 한국어 듣기(F=5.447, p=.005), 학업성적(F=5.758, p=.004), 유학만족도(F=5.771, p=.003) 및 지각된 건강상태(F=4.077, p=.01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즉 학부과정 학생이 대학원생보다, 학교외의 장소에서 거주하는 유학생 집단이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유학생 집단보다, 경제수준 정도가 보통인 집단이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한국어 말하기 능력 정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다. 한국어 능력의 경우 듣기능력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3.0 미만인 집단이 4.0 이상인 집단보다, 유학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보통이거나 높은 집단보다, 지각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좋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중국 유학생의 우울, 적응유연성, 사회적 지지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관계

중국 유학생의 우울, 적응유연성, 사회적 지지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우울정도가 심해질수록(r=.330, p<.001), 적응유연성이 낮을수록(r=-.130, p=.026),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r=-.202, p=.001)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3.** Difference of Acculturative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91)

Variables	Categories	n	M±SD	t or F	p
Age (year)	< 20	19	39.00±6.89	0.875	.418
	20~24	250	38.62±7.03		
	≥ 25	22	36.64±6.28		
Gender	Men	87	39.13±7.35	1.004	.316
	Women	204	38.23±6.80		
Educational level	Undergraduate <sup>a</sup>	199	39.21±7.31	3.392	.035 a>b
	Graduate <sup>b</sup>	29	36.52±4.97		
	Language school <sup>c</sup>	63	37.17±6.35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12	38.89±7.15	0.617	.604
	Natural science/engineering/education	45	38.91±6.72		
	Art and physical education	58	37.58±6.79		
	Medicine and nursing	76	38.50±6.97		
Length of stay (month)	≤ 6	171	38.59±7.02	0.041	.960
	7~12	53	38.43±6.68		
	≥ 13	67	38.31±7.15		
Religion	No	199	38.57±7.38	0.268	.789
	Yes	92	38.34±6.23		
Type of residency	Dormitory	260	38.16±6.65	-2.408	.017
	Boarding house and etc.	31	41.32±8.87		
Economic status	High <sup>a</sup>	15	40.60±7.22	3.331	.037 a>b
	Middle <sup>b</sup>	231	37.97±6.70		
	Low <sup>c</sup>	45	40.03±7.85		
Korean fluency speaking	High <sup>a</sup>	20	35.45±6.27	5.812	.003 c>a
	Middle <sup>b</sup>	133	37.57±6.42		
	Low <sup>c</sup>	138	39.83±7.32		
Listening	High <sup>a</sup>	61	36.52±6.68	5.447	.005 c>a
	Middle <sup>b</sup>	128	36.16±6.10		
	Low <sup>c</sup>	102	40.10±7.81		
Reading	High	67	37.01±6.61	2.833	.060
	Middle	148	38.51±6.39		
	Low	76	39.78±8.10		
Writing	High	35	37.77±6.42	2.467	.087
	Middle	133	37.71±6.57		
	Low	123	39.55±7.43		
Grade point average (n=251)	< 3.0 <sup>a</sup>	44	41.22±8.48	5.758	.004 a>c
	3.0~4.0 <sup>b</sup>	165	38.73±6.25		
	> 4.0 <sup>c</sup>	42	36.31±6.43		
Satisfaction for studying abroad	High <sup>a</sup>	129	37.13±7.01	5.771	.003 c>a, b
	Middle <sup>b</sup>	139	39.25±6.44		
	Low <sup>c</sup>	23	41.61±8.31		
Perceived health status	High <sup>a</sup>	185	37.75±7.08	4.077	.018 c>a
	Middle <sup>b</sup>	75	39.19±5.98		
	Low <sup>c</sup>	31	41.32±7.77		

**Table 4.** Correlation Among Depression, 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N=291)

Variables	Depression	Resilience	Social support	Acculturative stress
	r (p)	r (p)	r (p)	r (p)
Depression	1			
Resilience	-.316 (<.001)	1		
Social support	-.352 (<.001)	.386 (<.001)	1	
Acculturative stress	.330 (<.001)	-.130 (.026)	-.202 (.001)	1

5.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변량 분석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수학과정, 거주형태, 경제수준, 한국어 수준(말하기, 듣기), 학업성적, 유학만족도, 건강상태 항목은 가변수 처리하여 우울, 적응유연성, 사회적 지지와 더불어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 전에 실시한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가 0.909~0.950으로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1.053~1.100으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았고, Durbin Watson 검정결과는 1.849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성이 없었으며, 상태지수(condition index)는 3.756~14.175의 범위로서 30 미만이었기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울, 학업성적, 한국어 말하기 능력이 포함되었는데, 이 중 우울이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로 제시되었다. 즉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성적과 한국어 말하기 능력이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이들 세 변수의 설명력은 약 15.5%였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Acculturative Stress among Chinese Students (N=291)

Variables	$\beta$	t	p
Depression	.293	4.889	<.001
Grade point average	-.137	-2.251	.025
Korean-Speaking Skill	-.124	-2.022	.044

$R^2=.165$ ; Adj  $R^2=.155$ ;  $F=15.100$ ;  $p=.044$

논 의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유학생의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를 포함한 간호중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38.50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와 같은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한 Walker 등(2008)의 연구에서의 평균 점수는 47.18±13.24

점보다 다소 낮은 수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호주에 유학하는 중국 출신 대학생 227명과 홍콩에서 유학하는 400명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에서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의미에 관한 Pan, Wong, Joubert와 Chan (2007)의 연구에서, 호주에 유학하는 대상자가 홍콩에서 유학하는 경우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가 더 높다는 결과와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즉, 한국어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한 나라이고 유사한 동양권 문화를 공유한다는 장점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인 일반적 특성과 심리사회적 변수인 우울, 적응유연성 및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에서, 우울이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학업성적 및 한국어 말하기 능력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즉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는 우울로서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와 같은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이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증, 및 자살에 대한 생각 간의 관계를 살펴본 Hovey와 King (1996)연구에서 우울과 자살에 대한 생각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거나 집단 정체성이 낮은 대학생은 우울 증상을 동반한다고 보고한 Walker 등(2008)의 연구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아시아 및 아프리카 유학생들의 우울 증상과 관련 있었다는 Constantine 등(2004)의 연구와도 유사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익숙한 문화에서 낯선 문화로의 이입과정에서 발생하는 transitional stress 혹은 relocation stress, life event stress의 일종으로서(Jou & Fukada, 1996), 개인의 우울성향은 유학생들과 같은 낯선 문화에서의 적응과정 중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학업부진, 인터넷 중독 및 자살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Jang et al., 2009; Sumer et al., 2008). 따라서 유학 초기, 유학생의 우울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사정도구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며 우울 점수가 높은 유학생에 대한 추후 관리를 지속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적응을 도울 수 있어야 하겠다.

학업성적의 경우 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단변량 분석에서도

성적 수준이 3.0 미만인 학생은 성적이 4.0 이상인 학생에 비해 현저히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였다.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성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Li와 Gasser (2005)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유학생들은 주로 학업을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성적이 나쁠 경우에는 또 다른 이차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능력의 경우 말하기 능력이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어 수준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Na (2006)와 Lee (2008)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며, 미국에 유학 중인 유럽과 아시아계 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 요인에 관한 Yeh와 Inose (2003)의 연구결과에서 영어 실력이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유학생의 빠른 국내 적응을 위해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주요 심리사회적 변수인 적응유연성과 사회적 지지의 경우 단변량 분석에서는 두 변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응유연성과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Miller와 Candler (2002)가 구소련에서 이민한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적응유연성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았다는 연구결과와 Sandhu와 Asrabadi (1994)가 외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다는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그러나 두 변수 모두 다중 회귀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와 적응 형태 같은 심리적 보호요소 기능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148명의 멕시코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rockett 등(2007)의 연구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불안과 우울 수준이 높은 것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으며, 불안과 우울 수준에서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주요 요인은 적극적인 적응자세와 부모 및 동료의 지지였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정신건강 ·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미국에 유학한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Lee 등(2004)의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정신건강 증상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으며 이때 사회적 지지는 증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매개요소로 작용하고 특히, 영어와 대

인관계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완화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우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중재효과가 크다고 언급한 Ayers 등(2009)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향후 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다양한 인종의 유학생을 포함하여, 적응유연성 및 사회적 지지 변수를 매개변수 혹은 조절변수로 했을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에의 영향을 다루어 볼 필요가 있겠다.

일반적 특성 변인 들 중 수학과정, 거주 형태, 경제수준, 유학만족도 및 지각된 건강상태 또한 단변량 분석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Na (2006)의 연구결과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학생은 자취나 기타 형태의 거주자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적었다는 결과 및 체류기간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Lee 등(2009)의 연구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였으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성별, 연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한 Na (2006)와, Yeh 등 (2003)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와의 차이는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약 21세이고 대상자의 58.8%가 체류기간 6개월 이하를 차지하며, 학부과정의 학생 및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주된 대상자로서 전체 유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고루 포함하고 있지 못하는 제한점에서도 기인할 수 있겠다. 따라서 향후 체류기간 및 연령, 거주형태 등의 분포를 고르게 하여 반복연구를 실시해 볼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비록 우울, 학업성적, 한국어 말하기의 세 변인의 설명력이 약 15.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국내 체류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추후 간호학 분야에서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자기주장 훈련이나 자기 표현을 위한 글쓰기 방법을 이용하여(Tavakoli et al., 2009)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유학생의 부모나 친구 및 건강관련 전문가들이 유학생들의 우울을 조기에 발견하여 도와줄 수 있도록 심리적 건강상태에 대한 스크리닝 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거주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은 평균  $38.50 \pm 6.97$ 점이었으며, 일반적 특성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변수는 수학과정, 거주형태, 경제수준, 한국어 말하기, 듣기, 학업성적, 유학만족도, 건강상태로 나타났다. 중국 유학생의 우울, 적응유연성, 사회적지지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는 우울정도가 심해질수록, 적응유연성 및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으로, 우울, 학업성적, 한국어 말하기 능력이 포함되었는데, 이 중 우울이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로 제시되었다. 즉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성적과 한국어 말하기 능력이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이들 세 변수의 설명력은 약 15.5%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유학생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우울 수준을 낮추어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외에도 유학생의 학업성적 및 한국어 능력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지지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이므로 주요 변인들 간의 인과성 부족의 제한점이 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으로 제시된 변수들의 설명력이 낮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차원적 측면에서 여러 변인들을 포함시키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전향적 연구가 진행되길 제언하는 바이다. 또한 기존 외국 유학생 대상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를 계기로 최근 외국 유학생들의 유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학 분야에서의 연구가 다학제적 접근방식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것 기대한다.

## REFERENCES

Ayers, J. W., Hofstetter, C. R., Usita, P., Irvin, V. L., Kang, S., & Hovell, M. F. (2009). Sorting out the competing effects of acculturation, immigrant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 report on Korean women in California.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7(10), 742-747.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697-712.

Choi, H. S., Choi, J. H., Park, K. H., Joo, K. J., Ga, H., Ko, H. J., et al. (2007).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as a screening instrument for major depressive disorder.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28, 114-119.

Constantine, M. G., Okazaki, S., & Utsey, S. O. (2004). Self-concealment, social self-efficacy,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in African, Asian, and Latin American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4, 230-241.

Crockett, L. J., Iturbide, M. I., Torres Stone, R. A., McGinley, M., Raffaelli, M., & Carlo, G. (2007).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Relations to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Mex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3(4), 347-355.

Hovey, J. D., & King, C. A. (1996).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9), 1183-1192.

Holleran, L. K., & Jung, S. (2005). Acculturative stress, violence, and resilience in the lives of Mexican American youth. *Stress, Trauma and Crisis: An International Journal*, 8, 107-130.

Jang, J. R., Song, W. Y., & Choi, M. Y. (2009).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self-control and education on internet addiction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2), 161.

Jou, Y. H., & Fukada, H. (1996). The causes and influence of transitional stress among Chinese students in Japa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6(4), 501-509.

Kim, O. S., Baik, S. H., & Kim, K. H. (2003).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stress, and loneliness in migrant Yanbian Korean work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5(4), 607-616.

Kim, S. J., Lee, S. H., Kim, S. Y., Kim, A. L., Park, H. T., & Lee, Y. J. (2008). Migrant workers' quality of life related to healt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0(5), 791-803.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8). *Student exchange & study abroad in Korea*. <http://www.mest.go.kr>.

Lee, J. M. (2008).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foreign students' the adaptation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Lee, J., Koeske, G., & Sale, E. (2004). Social support buffering

- of acculturative stress: a study of mental health symptoms among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8, 399-414.
- Lee, K. J. (1997). *Stress, social support, and behavior problem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Jeonnam University, Kwangju.
- Lee, S., Lee, Y., Kim, S., & Kim, S. (2009).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in migrant workers.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39(6), 899-910.
- Li, A., & Gasser, M. B. (2005). Predicting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sociocultural adjustment: A test of two mediation model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561-576.
- Miller, A. M., & Chandler, P. J. (2002). Acculturation, resilience, and depression in midlife women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Nursing Research*, 51(1), 26-32.
- Na, I. S. (2006). A Study on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life stress among foreign students. *Korean Nonprofit Research*, 5(2), 159-197.
- Pan, J., Wong, D., Joubert, L., & Chan, C. (2007). Acculturative stressor and meaning of life as predictors of negative affect in acculturation: A cross-cultural comparative study betwee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Australia and Hong Kong. *Australian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1, 740-750.
- Sandh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 Song, Y. S. (2004). *Determinants of resilience of the physically disabled at ho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 Spitzer, R. L., Kroenke, K., & Williams, J. (1999). Validation and utility of a self-report version of PRIME-MD: The PHQ primary care study. primary care evaluation of mental disorders.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JAMA*, 282(18), 1737-1744.
- Sumer, S., Poyrazli, S., & Grahame, K. (2008). Predictors of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6, 429-437.
- Tavakoli, S., Lumley, M. A., Hijazi, A. M., Slavin-Spenny, O. M., & Parris, G. P. (2009). Effects of assertiveness training and expressive writing on acculturative stress in international students: A randomized tria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4), 590-596.
- Wagnild, G. M., & Young, H. M. (1993).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resilience scale.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1(2), 165-178.
- Walker, R. L., Wingate, L. R., Obasi, E. M., & Joiner, T. E. (2008).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nd ethnic identity as moderators for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4(1), 75-82.
- Walsh, F. (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NY: Guilford Press.
- Yeh, C. J., & Inose, M. (2003). International students' reported English fluency, social support satisfaction, and social connectedness as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Counseling Psychology Quarterly*, 16(1), 15-28.
- Ying, Y. (2005). Variation in acculturative stressors over time: a study of Taiwanes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59-71.